

감사의 글

저희 큰 아이 혼사를 지난 7월 6일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. 이번 혼사는 저희가 가족을 이룬 후 집안의 가장 큰 행사였기에 준비와 진행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었습니다. 혹시라도 불편하신 점이 있으셨다면 너그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당일 많은 하객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신랑과 신부의 앞 날을 축복해 주셨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



딸 아이 윤선이와 사위 장 하다 군은 이제 부부가 되어 동반자로 잘 살아갈 결심을 하였습니다. 사위와 딸 아이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사위는 재무 관련 업무에 종사하려고 하고 딸 아이는 계속 학문에 정진하려고 합니다. 어느 하객 분이 말씀하신 부부의 상경여빈(相敬如賓)의 자세로 평생을 서로 존경하며, 즐거움과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계속 지켜봐 주시고 격려를 부탁드립니다

일일이 찾아 뵙지 못하고 우선 감사의 글로 인사를 대신 합니다.

전승준 신윤미 올림

